

安·劉 “개혁보수·합리적 중도 합친 통합개혁신당 만들겠다”

안철수·유승민, 양당 통합가칭 ‘통합개혁신당’ 공식 선언

‘현 정부·보수야당 무능’ 함께 비판하며 신당 필요성 강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8일 양당을 통합해 가칭 ‘통합개혁신당’을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안 대표와 유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로 시작하겠다”며 양당 통합을 공식화했다.

지난해부터 양당 통합 논의가 작던 이후 두 대표가 함께 통합선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두 대표는 미리 준비해온 통합선언문을 번갈아 가며 읽었다. 현 정부와 보수야당의 무능을 함께 비판하며 통합개혁신당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유 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힘을 합쳐 더 나은 세상,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통합개혁신당을 만들겠다”며 “오늘 저희 두 사람은 양당의 대표로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통합개혁신당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힘

이다. 우리 정치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국민이 행복해진다”며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의 운명이 위협에 처하고 국민이 고통 받게 된다. 지금 우리 정치가 그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 사이에 청년 실업은 IMF 위기 이후 최악”이라며 “중부담 중복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중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에 매달리는 것은 이 정권이 그렇게 비관하던 박근혜 정부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능, 독선, 오만에 사로잡힌 민생대책들은 내놓는 것마다 시장에서 실패하고 있다. 지난 8개월의 혼선은 집권세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오만한지 확실하게 보여줬다”며 “이런 무능한 세력에 정권을 넘겨준 낡고 부패한 보수야당은 반성도, 책임도 비전도 없이 국민에게 대안세력으로서 조금도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희망은 커녕 막발과 구태로 비판과 견제라는 이방

로써 최소한의 역할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이렇게 오늘의 한국 정치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무책임하고 위험한 진보가 양극단을 독점하면서 진영의 논리에 빠져 있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만들 통합개혁신당은 한국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제8의 길을 약속하고 국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았다. 바른정당은 촛불정국 이후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개혁적 보수의 길을 지켜왔다”며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건전한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힘을 합쳐 우리 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한다. 유능한 대안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통합개혁신당은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와의 전쟁을 선언한다. 패거리, 계파, 사당과 같은 구태정치와 결별한다”며 “깨끗한 정치



국민의당 안철수(왼쪽),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통합 선언을 하기 앞서 손을 잡고 있다.

를 위해 부정부패는 성역 없이 뿌리를 뽑겠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낡은 지역주의를 극복해 동서가 화합하고 통합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권력기관을 개혁하고 국민의 기본권, 권력구조, 지방분권 등 헌법의 전면적 개정에 나서겠다. 국

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도 만들겠다”며 “저희들은 오로지 두 가지만 생각한다. 국민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만 생각하며 바른 길을 걸겠다”고 했다.

文대통령 “MB, 노무현 죽음 거론...분노 금할 수 없어”

“대통령 역임한분으로서 안될 사법질서 부정”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한 것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을 운운한 데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한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질서 부정이며 정치근간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역사위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계벌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입장이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아침 회의에서 대변인이 대통령 발언을 대독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내기로 결정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검찰에 개입하는 것 같은 표현이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며 “노 전 대통령 죽음을 직접 거론한 것은 해서는 안 될 금도를 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 입장에는 노 전 대통령 죽음이 직접 거론된 것에 대한 불쾌함을 넘어서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한다”면서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은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언급할 수 있다.



박수현 대변인이 18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성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의 분노가 개인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가 근간을 흔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개호 “2월1일 도당위원장 사퇴...‘2말3초’ 출마선언”

“의원직 사퇴 시기는 중앙당과 상의해 결정”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유력 후보인 이개호 의원이 오는 2월1일 도당위원장을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도지사 선거전에 뛰어든다.

이 의원은 18일 무안 남야에서 전남도의회 기자회견과 만나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2월3일 전인 1일 도당위원장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지방선거에 나서는 당직자는 4개월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때문에 이 의원은 도당위원장과 함께, 수행하고 있는 호남류 최고위원도 동시에 내려놓는다.

이 의원은 차기 도당위원장에 관련 “후임 도당위원장은 시장과 군수 지방의원 선거의 공천을 위한 전반적인 권한행사를 하고 최고위원도 겸직한다는 점에서 ‘슈퍼 도당위원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2월말이나 3월초에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이다”고도 밝혔다.

이 의원은 도지사 출마와 관련해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한 질문에 “도지사 출마하면 현역 의원직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며 의원직 사퇴시기는 중앙당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전남 동부권이 과거와 달리 위기에 빠져있다고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양부시장 2번, 여수부시장 1번 등을 역임한 만큼 누구보다도 동부권을 잘안다고 주장했다.

동부권을 여러 번 강조한 것은 나름대로 취직으로 보기때문에 해석되며 ‘구애작전’으로 보인다.



현재 동부권 출마에상자로는 도의원과 시장, 군수, 국회의원 등을 두루 거친 국민의당 주승용의원이 있다.

그는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현역의원으로 중앙당에서 출마를 허락할까’라는 질문에 대해 “출마해도 될 사람과 막을 사람이 있었지만, 유일한 현역이란게 불이익으로 작용한다면 합리적이라고 본다”면서 “중앙당이 아직 별말이 없고 성원하고 있다. 여론 등을 통해 중앙당이 판단하겠지만 저는 자유로울 것이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무료상담환영”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